

어촌어항어장 소식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12 (13층) T. (02) 3673-2858·9 F. (02) 3673-2857 www.fipa.or.kr 발행경/편집인 裴平岩·인쇄인 金在克 ISSN 1227-7053 등록일 : 1988년 2월 19일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어촌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3월 25일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어촌·어항개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어촌·어항 개발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수단을 제시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계획의 범위는 연안과 내수면을 포함한 11개 시·도 86개 시·군·구의 읍·면·동, 어촌계, 어촌마을과 국가어항 104개소, 지방어항 287개소, 어촌정주어항 521개소, 소규모항포구 1,393개소 등 총 2,305개소의 어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2009년~2013년, 중장기 2014년~2023년으로 설정하였다.

주요내용을 어촌과 어항분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촌분야는 ‘어촌다움을 갖춘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속사업인 어촌개발사업과 어촌관광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어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과 낙후마을 생활환

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추진할 2단계 70개권역에 대해 어촌유형별 특화 개발을 위해 대중소로 구분하여 테마별로 집중 투자하며 권역당 50억, 40억, 30억 규모로 차별 지원 예정이다. 어촌개발사업내 어촌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2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어촌관광개발사업은 단기에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의 기수립된 32개 잔여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에는 개소당 60억 규모(계획)로 시도별 10개소씩 110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어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과 낙후마을 생활

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어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은 노령화되어 있는 어촌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개소당 5억원(추정치)으로 총 111개소(시범사업포함)에 실시 예정이며, 낙후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낙후어촌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설, 어촌경관개선, 주택정비 등에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개소당 30억원(추정치)으로 총 310개소(시범사업포함)에 실시할 예정이다.

어항분야는 ‘국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이라는 비전아래 어항기본사업, 어항정비사업, 어항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항기본사업은 2012년까지 국가어항 계속투자항 12개항을 완공하고, 추가지정항에 대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어항정비사업은 국가어항 28개항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준설토 처리와 설계과 상항 조정에 대한 대책마련 및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어항환경개선사업은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단기에는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완료하고, 관광기능시설 및 어항정화시설 중 공익기능이 높은 시설에 대한 사업 착수 및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마리나 계획을 검토, 착수할 계획이다.